

호매칼럼



류준식 시인·작사가

요즘 어린이들은 잠으로 영약하다. 어른 못할 말을 하고 어른 못할...

이런 아이들이 가끔씩 이웃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적어진다.

그러지 않아야 할 곳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들길처럼 누비고 소란을 피운다.

그때마다 그 가정과 나라의 장래가 걱정스럽다. 조심스럽게 한마디 부탁을 하면 '당신이 뭘데 왜 남의

자식 기 죽이느냐'며 대들고 나선다.

남에게 피해를 줄 권리는 없는데 간섭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기 살리는 교육으로 잘못 알고 있다.

언젠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더 큰 요구를 받게 된다. 그 때 못 들어주게 되면 부모를 원망하고 성질과 행동은 자제치 못하여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3년간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석

회초리

봉이를 불 끄고 시험해본 어머니는 그를 가차없이 돌려보낸다. 어찌 그 어머니를 자식사랑 없다.

법범자가 되거나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사회의 낙오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다.

그 대부분은 천성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고운 천성을 소유했으면 서도 부모의 잘못된 편견과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어린이는 칭찬을 먹고 자란다. 기를 죽여서는 물론 안 된다. 잘하는

것을 찾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해야 할 때와 해서 안 될 때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훌륭한 자녀로 기르려면 먼저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

내 자녀를 염려하는 눈길에 감사하여야 한다.

이제, 내 눈에 드는 아이가 아니라 남의 눈에 드는 아이, 남이 부러워하는 자녀로 길러야 할 일이다.

-회초리
꼭질 것 하나 없다, 등 밀어 세운 자식
정 맞아 낯선 그 끝 가슴팍을 후비나니
한석봉 그의 어머니 내치심의 자릴 본다

내 좋아 띄운 자식 하나같이 눈엣가시

정 따로 기른 자식 언 가슴 태우나니

난 사람 든 사람이라, 된 사람을 시샘하자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하는 안전의 시작



김석운 /보성소방서장

드림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소방청은 작년부턴 '주택용 화재경보기 258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설치율은 단순한 수치로서의 그의 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해의 사례를 볼 때 미국은 2004년까지 96%의 화재경보기 보급을 달성하여 사망자가 무려 56%나 감소하는 효과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 2월 주택에서 주방 전열기구 상부에 놓아둔 골판지 종이박스가 연소되면서 화재가 발생 당시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집주인이 주택용 화재경보기 경보음을 듣고 깨어나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가 있다.

이처럼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가성비가 좋은 소방시설'임에 틀림이 없는 듯하다.

저렴한 가격과 10년이라는 긴 수명, 3년이 채 안 걸리는 설치시간 등 투자 대비 유익한 점이 이렇게 많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이제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것이다.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정식 명칭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이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주택용 화재경보기라는 명

칭이 이해가 빠르고 많이 쓰이기에 이 글에서는 주택용 화재경보기라는 명칭을 썼다.

공사장 용접 작업시 화재안전수칙 준수는 필수



오원균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장

연말연시 겨울철 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위해 각 방마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꼭 설치하자.

공사장 특성상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다.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바닥에 충분한 양의 물을 살수하는 등 불티에 의한 발화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

또한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건축 공사현장의 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대부분 용접작업자의 안전의식 부족,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 소홀, 작업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의 미설치, 가연물질 제거조치 미이행, 내부 작업자들에게 용접사실 미통보, 위험성이 동반된 작업공정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안전수칙을 준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자는 용접 작업 전 건축물 책임자 혹은 안전관리자에게 알리고, 사업주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해야 한다.

화재감시자는 작업장 주변에 가연

성 물질과 인화성·폭발성의 위험물을 제거하고, 용접작업 장소에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소화기·불씨가 날리는 것을 막는 방법(불꽃받이 또는 불연성 포대)으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임시 가설전기, 가스시설 등의 안전성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둘째 사업주는 작업장 주변에 소화기, 소화전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하고, 화재감시자로 하여금 주변을 감시하게 하거나 유사시 임시소방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용접 작업 중에는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의 존재나 산소결핍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작업자는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비상연락수단을 확보하여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용접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을 해야 한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불씨가 가연물과 접촉해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장에서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관계인이 안전의식을 갖고, 한박자 쉬어 가며 비용절감보다는 안전을 최우선하는 노동환경 분위기를 조성해야 반복되는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사제보 E-mail : honamnews@hanmail.net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www.homae.co.kr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호남매일 www.homae.co.kr
발행·편집인 고계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장실 (062) 363-0027 편집국장 (062) 363-8800
광고국 (062) 363-0005 정·경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 회 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 체 부 (062) 362-6116
인쇄취재포토팀 (062) 943-0140 지 역 사 회 부 (062) 362-6226
구독료 연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기사제보·독자 의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aeil@naver.com

Table with 3 columns: 지국안내, 상무, 오차, 지사안내, 목포, 순천, 광양, 완도, 나주, 담양, 곡성, 구례, 보성, 화순, 영광, 영암, 장흥, 신안, 강진, 장성, 무안, 여수, 함평, 진도, 해남, 고흥, 광산